

IS, 시리아 주민 400명 한 번에 처형

기독교 마을 여성과 어린이 향해 무차별 살인 후 시신 훼손

시리아인권관측소, 추가 희생자 600명 발생 경고

이슬람국가(IS)가 지난 주 점령한 시리아 팔미라 시에서 최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시리아 국영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다. 살해당한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보이며, 아직 수백 명이 더 포로로 잡혀 있고 이들 역시 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는 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25일 보도를 시리아 국영 방송을 인용, "IS 테러리스트들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들이 정부에 협력하고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 역시 길거리에 방치된 수백 구의 시신들은 시리아 정부에 충성해 IS를 대항하기 위한 전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IS의 팔미라 시 점거는 지난 주 테러리스트들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적인 유적지를 파괴한 사실

이 드러나면서 국제 사회에 크게 알려지고 비난을 샀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 도어즈(Open Doors)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팀 뮤렛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유적지의 파괴뿐 아니라 점거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살해, 납치, 마을 공격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마을 역시 역사적 중요성이 있고, 특히 대부분의 마을들이 기독교인들의 마을이다"며, "뉴스를 통해 세계인들이 보는 것은 진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 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는 보도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람들의 수를 217명으로 보고했으나,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포로로 잡혀 있으며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시리아 정권에 협력한 이

들 600명 포로들은 처형당한 217명과 동일한 운명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고 단체는 25일 밝혔다. 단체는 또한 IS가 지난 16일부터 주민들의 처형을 시작했다고도 전했다.

IS는 현재 시리아 영토의 절반 가량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서도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하며 최근에는 또 다른 주요 도시인 라마디 시를 점령하기도 했다. 라마디 시 장악은 지난해 미국이 이끄는 국제 연합의 공습이 시작된 이래로 IS의 가장 큰 승리로 분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IS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박으면서도 IS와의 대치는 수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마디 시 점거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라마디를 잃은 것이 "전략적 차질"을 의미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인천에 글로벌 테마파크와 함께 기독교 테마파크를 건립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비즈포스트 임원들이 최근 한 자리에 모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인천을 세계 기독교 성지로!

LA 한인들 초대형 기독교 테마파크 추진

한국 인천 수도권 매표지에 조성될 글로벌 테마파크 단지 내에 기독교 테마파크가 함께 들어선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크고 작은 기독교 관련 체험 전시회가 종종 열리곤 했지만 상설 형태로, 그것도 대형 테마파크 단지 내에 설립되는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다. 공식 명칭은 '바이블랜드 코리아'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이상의 기도와 준비 끝에 본격적 시작을 앞두고 있다. LA의 대표적인 한인 기업 비즈포스트가 건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강신권 목사(코헨대학교 설립 총장)와 정용섭 교수(상명대학교)가 주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 2면에 계속

한인교계, PCUSA에 선한목자교회 탈퇴 지연 항의

"차별이자 이중잣대... 노회가 교회 어려워지도록 방치"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PCUSA 탈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교단에 서한을 보내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다. 개교회의 문제에 지역 연합체가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만큼 한인 교회들이 PCUSA의 동성결혼 허용으로 인한 거취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선한목자장로교회는 PCUSA의 동성결혼 허용에 반대해, 교회가 속한 새가브리엘 노회와의 협의 하에 소위 '은혜로운 결별(Gracious

Dismissal)'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를 열어 성도 91%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가결했지만, 노회는 이를 아직도 승인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전권위원회(AC)를 구성하고 이동우 목사를 당회장으로 임명했다.

LA동부교역자협의회는 "저희가 지난 10년을 교제하고 지켜본 결과 고태형 목사님이나 선한목자장로교회는 지역교회들의 모범으로서 존경받고 있다"며 편지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왜 (선한목자장로교회의

교단 탈퇴) 은혜로운 결별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교회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을 노회가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PCUSA 소속이었던 교회들이 은혜로운 결별의 원칙에 따라 교단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은혜로운 결별을 시도한 한인교회만이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더욱 의구심에 찬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인교회를 향한 차별이라는 생

각과 이중잣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실망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귀 교단의 리더십이 이곳 한인교회의 정서와 생각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요청한다. 만약 선한목자장로교회나 고태형 목사님이 은혜로운 결별이 진행되지 않고 귀 교단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과연 이곳에 PCUSA 한인교회가 이 지역 한인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하시게 되길 바란다"며 "너무 오랜 시간 은혜로운 결별이 연기되고, 지역 교회에 일부 소수 반대자들의 블랙 메일이 지역 교회에 유포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귀 교단의 노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편지를 마치며 협의회 측은

"한 형제로서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노회 측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편지에는 회장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를 비롯해 이중철 목사(성화사랑의침례교회),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 라세엽 목사(호산나교회), 박승규 목사(동부사랑의교회), 송재호 목사(하늘샘교회),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등이 서명했다.

한편, 이 협의회는 지난 4월 28, 29일 연합새벽기도회를 열고, 이 지역 한인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한목자장로교회의 교단 탈퇴를 위해 기도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213) 380-1100 Cell:(213) 700-6989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인천에 초대형 바이블랜드 코리아 건립

세계 기독교 문화의 새 이정표로 주목돼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세워질 글로벌 테마파크 조감도. 이곳에 '바이블랜드 코리아'도 건립될 예정이다.

글로벌 테마파크의 규모 및 유리한 지리적 위치

현재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는 LA 한인 기업 비즈포스트그룹(회장 존 김)이 주도하고 있다. 153만 평의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질 이 글로벌 테마파크 내에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다양한 놀이 시설과 함께 휴양시설, 쇼핑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국제공항과는 자동차로 불과 2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관광객 유치에는 더 없이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면서 세계 관광 산업계의 구도를 바꾸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발빠른 움직임 속에서 그 중심축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설 인천 수도권 매립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 될 것이다. 그 한 가운데 '바이블랜드 코리아'가 우뚝 들어서게 된다.

바이블랜드 코리아 콘텐츠는?

바이블랜드 코리아의 콘텐츠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천지창조, 노아홍수, 선지자의 시대, 예수의 탄생과 사역 등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영화, 놀이시설, 각종 설치물 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창조과학박물관도 들어선다. 또한 세계 기독교를 섬기는 선교본부, 600명 규모의 대학원 교육시설, 선교사들의 숙소와 연수시설 등도 포함돼 사실상 세계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중심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될 것이다.

바이블랜드 코리아 설립 비전



5월 18일 LA 비즈포스트그룹 대회의실에서 정용섭 교수(좌)와 클라라 김 사장(우)이 '바이블랜드 콘텐츠' 제공 협약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했다.

적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맨 처음 뿌려진 곳이 바로 인천이다.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도 인천(제물포)을 통해 한반도에 복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했다. 그 열매는 다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세계 제일의 선교사 파송국의 헌신된 모습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인천은 참혹한 6.25전쟁을 종식시킨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역사지이기도 하다. 그 역사의 숨결은 기독교 문화 선교를 통한 통일 선교의 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글로벌 테마파크 단지 내에 세워질 바이블랜드 코리아는 세계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세기적 이정표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선도할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이블랜드 코리아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의 일정액은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 섬김에 지원될 것이다.

바이블랜드의 시작과 성서적 고증

바이블랜드에 대한 최초 아이디어 제공 및 성서적 고증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됐다. 강신권 목사(코헨대학교 설립총장)는 이미 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 문화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바이블랜드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후로 중단없는 성서적 고증을 계속해 오며 비즈포스트그룹에 의한 바이블랜드 설립의 가시화를 가능하게 했다. 강신권 목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된 완벽한 성서적 고증과 이를 문화 콘텐츠에 접목시킨 정용섭 교수에 의한 '바이블 콘텐츠'의 접목은 세계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며, 그 장소는 한국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조성될 글로벌 테마파크 단지 내에 바이블랜드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비즈포스트와 바이블랜드 양측 콘텐츠 협약

비즈포스트그룹과 바이블랜드 저작권자인 정용섭 교수(상명대학교)는 지난 5월 18일 LA 비즈포스트 그룹 대회의실에서 바이블랜드 콘텐츠 제공 협약을 맺고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는 강신권 목사, 축사는 김찬곤 목사(GMS 부이사장)가 각각 섰다.

교계의 중보기도 및 협력 요청

바이블랜드 관계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이블랜드 코리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다. 중보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영인 기자

KUMC 전국지도자대회 열려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다양한 강의와 워크샵



전국지도자대회가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 대회 중 성찬식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이성현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고 있다. ©밸리KUMC

한인연합감리교회(KUMC)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전국지도자대회가 올해는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Re+Member!"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매년 메모리얼데이 연휴 중 열리는 이 대회는 바람직한 목회 모델 확산을 목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어우러진 가운데, 대회가 열리는 교회의 목회 모델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대회에서는 한인 감독 중 한 명인 박정찬 감독(서스캐너나연회)이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후, 밸리연합감리교회의 류재덕 담임목사가 주제 강연으로 밸리연합감리교회의 목회를 설명했다.

류 목사는 한인 지도자들에게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자신과 교회의 역량을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빛진 자임을 깨닫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먼저 주문했다.

류 목사는 목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디모데후서 2:20-21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짚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류재덕 목사 ©밸리KUMC

이후에는 이교회의 사역을 이성산 EM목사가 "미래, 함께 크는 패밀리 사역," 이동규 부목사가 "사랑을 세우는 토달 목회," 조기현 전도사가 "기본기? 성경통독에 있습니다"란 제목의 강의로 소개했다.

이 외에도 이철구 목사(남부풀로리다교회), 강원근 목사(뉴욕감리교회), 이진희 목사(웨슬리교회), 조건호 장로(샌디에고교회)가 주요 강의를 맡았다.

올해는 "중소형 교회의 기본기"에 관해 한동수 목사(한미연합감리교회), "치유를 위한 리더십"에 관해 도상원 목사(갈보리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이승필 목사(교단 공보부 디렉터), "현대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에 관해 이용윤 목사(기감 사무국 총무), "여성과 사역"에 관해 김명래 전도사(한인여성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교회 개혁"에 관해 이영성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가 각각 워크샵 강의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6월 15일 신천지 대책 세미나 개최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이 신학생들은 물론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을 위해 이단대책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신천지 추수꾼 예방 및 색출 대책"으로 이 분야 전문가인 진용성 목사(안산상복교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가 나선다.

6월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9



진용성 목사

시까지 학교 내 페이튼 홀 301호에서 세미나가 열리며 식사가 제공된다. 세미나 문은 전화 626-584-5574로 하면 된다.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미주 한인교회는 무풍지대? 저작권에 눈 떠야 할 때

기독 문화 활성화 위해 필수 ... 엘로힘 등 단체들 CCM 저작권 대행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고?”

한국은 물론, 대다수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이 표현에 심각한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지만 엄연한 사실임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찬양할 자유는 있지만 누군가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교회에 CCM 저작권에 대한 여론 향기가 시급하다. 여차하면, CCM 작곡가도, CCM 가수도, 교회도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상비용이 적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작권은 예술이나 문학, 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창작물을 사용,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만약 교회에서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다면 벌금을 물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구매하지 않은 음악을

사용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종교적 목적의 면제 조항이 있다. 이는 공적 예배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CCM 가수 A 씨의 노래를 성도들이 예배 때 부르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노래를 성가대가 부른다고 할 때, 악보를 성가대원의 수만큼 구매하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하면 불법이다. 또 예배 중 가사를 프로젝터로 화면에 출력할 수는 있지만 곡의 가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녹화해 인터넷 방송을 할 때 그 음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확히 예배 때 예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저작권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저작자를 일일이 찾아내서 악보, 연주, 녹음, 복제 및 배포 등에 대한 권한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널리 사용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이 오히려 ‘사용 불가’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래서 저작권 대행 단체들이 이 권리를 저작자로부터 대행하며 사용자는 이 단체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하면 된다.

CCM 분야는 각 저작권 단체들이 보유한 곡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곡을 부르고자 한다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대행하는 단체를 찾아내야 한다. 대부분 저작권 단체들은 포괄 면허(Blanket License) 방식을 제공한다. 한 단체와 계약하면 그 단체가 보유한 모든 곡을 일정 회비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국제 저작권 단체의 한국지부인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권협회(KCMCA) 등의 단체가 교회를 위해 CCM의 저작권을 대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세계 24만 교회가 가입한 CCLI는 20만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교회가 CCLI에 가입하면 이 20

만 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CCLI가 보유하고 못한 곡을 사용할 때는 다른 저작권 단체로부터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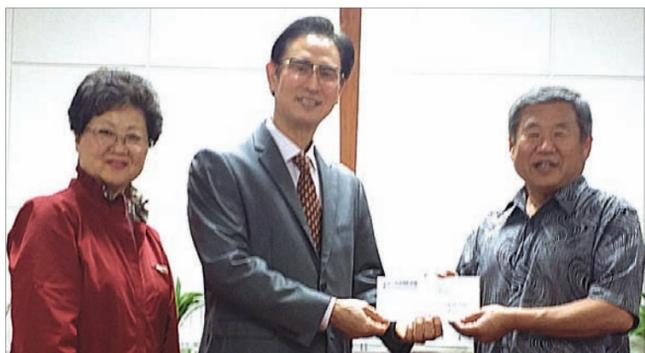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아직까지 CCM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체가 없었지만 엘로힘EPF USA가 교회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일반 음악 저작권과 함께 CCM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이 분야의 담당자로 찬양사역자 채한성 음악감독이 참여하고 있다. 채 감독은 <주님 사랑 온누리에>, <예수는 나의 왕>, <따스한 햇살처럼> 등 유명한 CCM 70여 곡을 작곡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한인교회들은 CCM 사용에 대해 합당한 권리를 갖게 되고 찬양사역자들은 창작과 연주에 더욱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CM 저작권 대행에 관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들을 후원하며 다음 세대 찬양의 주역들을 지원하는 매우 귀한 사역”이라며 교회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

는 “교회를 향해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과 문화 사역에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한 CCM들은 www.elohimepf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 감독은 작곡가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보유곡을 더욱 확보해 교회들의 저작권 구매를 편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단체가 최근 작성한 공문은 교회들이 6월 30일까지 저작권 라이선스를 엘로힘으로부터 발급받으라 요청하며 이후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엘로힘은 이미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요의 경우, 노래방 등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가 제공하는 CCM 저작권 비용은 교회 등록 인원에 근거해 25명 이하는 매달 20달러, 76-100명은 60달러, 251-300명은 190달러, 701-900명은 480달러 등 다양하다. 문의) 213-559-7811

김준형 기자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담임목사(가운데)가 SON 미니스트리 김정한 선교사(오른쪽)에게 특별 헌금을 전달하고 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 올해 말 창립을 준비하며 5월 22일 LA에서 발기인 모임을 열었다. 이 단체는 6월 8일 워싱턴DC에서도 발기인 모임을 열 계획이다.

네팔 의료선교와 구호 위해 특별 헌금

주님세운교회 SON 측에 4,582 달러 전달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가 5월 26일 네팔 지진 의료선교팀을 위한 특별헌금 4,582 달러를 SON 미니스트리(김정한 선교사)에 전달했다. 이 교회는 금요일에 이 헌금 일부를 전달했고 그 헌금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이 헌금은 오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4명의 네팔 의료선교팀 사역에 사용된다.

이 의료선교팀은 세계의료선교

회(김인철 목사), 현지의 글로벌호프와 함께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철학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네팔 주민들에게 밝은 빛도 함께 전한다. SON 미니스트리에서 선교와 재난 구호 목적으로 개발한 솔라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SON 미니스트리는 네팔의 장기적 구호를 위해 교회들의 선교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714-350-6957

분열과 갈등 아닌 양보와 관용으로

한인전국재단,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창립 준비

미주한인전국재단이 자진 해산하고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가칭)을 창립한다.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은 미주한인재단(총회장 박상원 장로)으로부터 지난 2012년 분열된 단체다. 미주한인재단은 2004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로부터 태동돼 그동안 한미 교류 및 이민 역사 기념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2012년 박상원 총회장에 반대하는 측이 미

주한인전국재단으로 나누어졌고 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미주한인전국재단은 자진 해산을 결정하고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으로 재창립 하게 된다. 22일 새 단체 발족을 위한 발기인 모임에는 조유규 전 한국 국회의원, 임용근 전 오레곤 주 상원의원, 박희민 목사, 한기형 목사,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한성수 목사(GMS 미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우호 목사는 “한인 사회에 분열이나 갈등이 아닌 양보와 관용, 화합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고 했고 한기형 목사는 “새로운 단테로서 한인 사회를 섬기기에 심기일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유규 의원은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선구자, 개척자, 모험가, 애국자였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섬기는 청송받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말 창립대회를 준비하며 정관을 만들고 총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그 전권을 이우호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전권위원회에 위임했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체진 특성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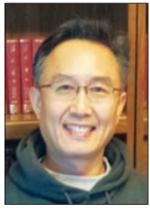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여승훈 목사의 묵상 칼럼

지쳐만 가는 직분자, 대책은 없는가?

“목사님, 교회 일에 이리 저리 뛰 어 다니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다. “목사님,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는 이곳 저곳 교회를 방문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어 느 장로님의 고백이다.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현대 교회는 직분자들이 점점 교회 일로 지쳐만 가고 있다. 이렇게 지쳐가는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마치 무거운 바윗돌을 끌고 가듯이 무겁고 힘겨운 분위기로 간신히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 목회자와 성도간의 골 깊은 불편함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를 향해 끊임없는 헌신을 요청하게 된다. 성도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헌신으로의 요청이 지나는 세월을 따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이해타산에 따라 실망감으로 다가 오기도 한다. 지쳐가는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목회적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한다. 진단 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에 대하여 처방책을 세우고 치료를 한다.

교회 일에 대하여 지쳐있는 직분자는 영적 상태에 어떤 버거움이 발생했는지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이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쳐가는 직분자들에 대한 치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어느날 아침에 필자가 자동 면도기를 사용하면서 조금 짜증이 났었다. 이유는 면도기가 작동은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필자의 아내가 자동 면도기 뚜껑을 열고 쌓여 있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깨끗이 청소해 주었다. 그리고 필자가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 문제가 있었느냐는 듯 전혀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분자들이 지쳐가는 배경에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요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인들 이면에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치 자동

면도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하듯이 영혼의 내면을 정기적으로 정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소되지 않은 자동 면도기의 특징은 파워를 켜면 작동은 하는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비유해서 헛바퀴가 돈다는 말을 한다.

직분자의 봉사는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혼의 내면이 정화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다.

주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열심’ 등이 아니겠는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행하면 분주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효과없는 헛바퀴만 돌게 되는 것이다. 이런 헛바퀴의 연속이 결국 스스로를 지쳐만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모두가 함께 깊이 새겨봐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경험이나 열성, 또는 열정이나 내면의 그 어떤 것을 표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회 봉사란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적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새롭게 직분자로 임직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런 새로운 각오로 교회를 섬기려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되짚어 보아야 할 뿌리적 사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섬겨 주시는 섬김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긴 것인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한 순서를 정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당부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주목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는 것이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그 섬김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곧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섬김과 봉사의 기본 정신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지 않고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을 참조해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므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영혼의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풍성히 채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영혼의 내면에 채워지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매일 매일 사활을 걸고 들어라! 선포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 교회 일에 지쳐 있는 당신의 영혼에 소생하는 새로운 은혜의 힘이 공급될 것이다.



이스트만 음대생들이 LA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을 위해 연주회를 열었다.

바이블 컨퍼런스 위한 연주회 열려

이스트만 음대생들 LA 방문해 큰 감동 전달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남가주 지역 세 교회에서 LA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을 위한 연주회가 열렸다. 미국 내에서 최고 명문 음대로 잘 알려진 이스트만 음대생들이 22일 그린힐스침례교회, 23일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24일 연약교회에서 각각 연주했다.

이 학교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주자들은 놀라운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큰 감동을 전달했다.

1부 연주에서는 소마 트리오의 String Quartet in B-flat Major, Op. 76, No. 4 Sunrise, 피아노 독주 Piano Sonata No. 20 in A Major, D 959, Sonata No. 7 for Violin and Piano, 오보에와 피아노 협연 Interlude for Oboe and Piano, Op. 21 가 연주되었다.

2부에서는 Fantasie in C Major, Op.17 피아노 독주와 첼로와 피아노의 협연 Sonata in G Minor for

Cello and Piano, Op. 19, 소프라노의 “Ah, Je veux”와 “Oh, Divine Redeemer”가 청중의 귀와 마음을 젊은 날의 아름다움, 기도자의 간절함과 고뇌를 느끼게 해 주었다.

특히 마지막에 소마 트리오가 연주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는 청중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앙코르 곡으로 소마 트리오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과 소프라노 김현지의 “금향로가 차기까지”는 청중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연주자로는 소프라노에 김현지, 오보에에 이지원, 바이올린에 박지은, 이효경, 비올라에 나찬미, 첼로에 신지인이 함께 했다.

이번 클래식 음악 콘서트는 7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채프만대학에서 열리게 되는 LA 바이블 컨퍼런스(말씀사경회)의 후원을 위해 열렸다. 문의) 강영수 목사 (213) 598-5323 www.labibleconference.org

강준민 목사 초청 연합 말씀 집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를 강사로 연합 말씀 집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시온성결교회(2149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90018)다. 집회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집회에서는

특히 라크라뎀버콰이어(지휘 윤임상 교수), 메시아여성합창단(지휘 노형건 선교사), KCCCN블푸른계절(인도 박종술 목사), 조이풀선교합창단(지휘 서문옥 목사), 유순 장로(전 봉봉사중창단) 등이 특별 공연도 펼친다. 문의) 최대영 장로 213-703-1740

<정정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21일자 483호 신문 3면 <세계한인예장 “성령의 능력

으로 전진”> 기사 소재목에서 ‘총회장은 이규보 목사’를 ‘총회장은 국남주 목사, 부총회장은 이규보 목사’로 정정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5 VBS JOIN US

탐미디어에서 준비한 더욱 풍성한 2015 VBS 아이템...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50

VBS CD (Copy & Print) \$1 (Min. 50개)

\$75 - \$60

VBS BANNER 3ft x 10ft \$75

패키지 상품

아이비베너/VBS 화이트베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50

VBS T-SHIRT

VBS T-SHIRT를 탐미디어에서 주문 해야 하는 이유

- www.group.com보다 더 저렴한 가격 (옵션)
- 앞면에 교회 이름까지 인쇄
- LA 근교 FREE SHIPPING

어른 \$7.20 (일반사이즈 기준)
어린이 \$4.20

VBS 어린이 선물용품 coming soon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MEDIA TOTAL SOLUTION

TOPMEDIA

www.topmediausa.com

3170 E.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fo@topmediaus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사역 위한 필생의 교훈

사도행전 26:8-2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사도행전 26:8-29

8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 이까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 아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1.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사역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필생의 교훈으로 전도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사역을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책감도 말할 수 없이 무거웠겠지만, 그 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이단의 주동자 나사렛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바울에게 아주 선행하고도 생생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행 9:4-6)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앞잡이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대적해 왔을 지라도, 이제 이 시간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내 종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려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고, 구속하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세계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너를 불려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을 만난 체험

여러분도 구약 시대에 모세처럼, 신약 시대에 바울처럼, 여러분의 목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기(轉機)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때, 그 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불려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만 쓰임받기를 힘쓸 때, 오늘의 제목인 '전도 사역을 위한 필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하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지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세우신 계획,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까지는 생명까지 써서 지키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체면적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불려 쓰시면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이론적인 것, 학술적인 그런 것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집니다.

3. 복음의 제물로 헌신

바울은 몸이 작고 허약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눈도 좋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역사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아흔 여섯 살 쯤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대로 순교한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순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 보답하는 것

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목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체험을 주셨으며, 어떤 능력과 사랑을 체험케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모함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복음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길리기가 수도로 가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다. 로마 황제에게 아버지가 청탁을 하면 크게 출세할 수도 있다.'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고구라졌을 때, 지금까지 바울의 잘못 살아왔던 자기 인생은 거기서 끝장이 났던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하셨을 그 순간, 그 시간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이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복음의 제물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를 엄청난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통한 영적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 받은 결과는 오늘날 전 세계 대양 육대주가 사도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물로 헌신하여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7시30분	동부 오후 7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xes 1-20 발행/ 선교사 정회원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증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p> <p>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213-908-8986 email: acus-edu@hotmail.com / acusimjeongseul@gmail.com</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p> <p>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Pre-K/Kindergarten Pastor

유치부 전도사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Rowland Heights. We are searching for a part-time pastor to shepherd our pre-K-kindergarten (age 3-6) department. We are search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model, and teach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from a Bible college or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and cultural context.
3.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Korean parents.
4.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5. A person of prayer.
6.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Primary duties are as follows:

1. Direct and lead Sunday worship as well as Bible study each week.
2. Direct and lead Friday night fellowship each week.
3. Create and execute annual plan and budget for the kindergarten department. The annual plan will include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VBS, prayer meetings, and any other fellowships.
4. Oversee and lead a staff of Bible study teachers.
5. Collaborate and work with other pastors in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6. Report to the Christian Education pastor.

Position	Salary and Housing	Benefits
Part-time	\$1500/month	none

a Resume with picture and Testimony
2 or 3 letters of recommendation/must come directly to Clark Choi from the recommender via email or US mail
mp3 or a youtube link to one of your sermons it woul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EMAIL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Phone : 714.328.2866

바락의 절반 순종과 절반 승리

가나안 사람은 평지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악의 사람이다. 이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은 산사람과 평지인의 싸움이다. 좋은 무기와 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은 비옥한 광야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의 통치 아래서 20년간 심히 학대받는 종살이를 한다.

고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에게 전쟁을 명령한다. 납달리와 스블론의 두 지파 만명을 모으고 하술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가나안왕 야빈과 싸우라고 한다.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기손 강에서 그에게 붙일 것이라고 한다.

바락 장군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나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삿 4:8)고 말하며 절반만 순종한다. 하나님이 승리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를 주시겠다는데, 바락은 사람,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드보라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 당신이 싸움에는 이기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니, 그 영광이 여인의 것이 되리라 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 결국 바락은 대승을 거두게 된다. 당시의 병거 900승을 모두 격파하게 된다. 승리의 이유가 바락의 10,000명의 군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평지에서 900대의 병거는 지금의 탱크를 가진 것 같아서, 보병만 가지고는 무기체계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기손강 상류에서 홍수가 나면서 병거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삿 5:21). 가나안이 신뢰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900대의 병거가 거의 쓸모없게 되었고, 이제 10,000명의 스블론과 납달리 군대는 병거에서 내려선 가나안 사람을 물리친다.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자신과 동맹 관계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들어와 숨는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침소에 숨어 들어온 장군이 잠든 것을 이용하여 처치한다. 야일은 깊은 잠에 빠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의 말뚝을 박아 죽게 한다.

하나님은 훌륭한 장군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사사 드보라에 연연하는 장부답지 못한 바락으로 승리하신다. 용맹한 남자가 아니라, 야일이라는 여인의 담대함을 통하여 적장을 물리친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거침없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사랑의 마음

나쁜 오후 한국에서 통일선교 아카데미 강의 차 방문한 허문영 박사와 함께 교회 근처의 산책로를 거닐었다. 그리 울창한 나무 숲 길은 아니지만 산새들이 제법 지저귀고 있었다. 조용히 길을 거닐던 허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한국의 새소리와 미국의 새소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새소리는 한국의 새소리보다 훨씬 맑게 지저귀는 것 같아요. 참 듣기 좋네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것은 '마음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었다. 각종 업무와 연구로 마음이 분주할 때 들려오는 새소리는 귀가에 맴도는 소음 정도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을 떠나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었던 새소리는 분명 음미할수록 즐거움을 주는 힐링의 소리가 되었을 것이다.

마음은 소리마저 다르게 들도록 만든다. 마음이 울퉁한 사람은 새가 지저귀는 때 '새가 운다'라고 표현한다. 반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한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황혼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힘없이 저무는 인생 끝을 보는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듯 하다'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찬란한 내일을 기약하며 태양이 휴식에 들어가노라'며 시를 읊조린다. 표현이 극과 극이다. 차이는 마음일 것이다. 한탄하는 사람은 분명 멧든 가슴의 소유자일 것이며, 쇠귀를 떠돌린 사람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 사람일 것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결국 마음의 차이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게 받아들인다. 반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삐딱하게 받아들인다. '아니 댄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이 있다.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나겠는가?'라는 말로 '원인없는 결과 없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아니 댄 굴뚝에 연기나는 것 많이 보았다'라고 말한다. 원인과 인과도 없는 말들이 마치 사실인양 여겨지는 행태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표현하는 말이다.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해하는 모습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오해하는 모습을 오로지 마음 상태가 결정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닦아가길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은 한번도 오해하신 적이 없으셨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단 한 건의 예수님의 오해조차 발견할 수 없다. 인간사 복잡한 것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데 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오해조차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렇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랑과 관용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건, 무엇을 들으시건 이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해답이다.

일하는 재미 노는 재미

유년 시절에 어른들을 따라 일하면서 부른 노래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은 일장의 춘몽이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였다. 놀지도 못하고 일하는 자신을 그렇게 한탄한 것이다.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 정구를 치다가 옆에서 구경하는 것 쓴 양반들에게 같이 공을 치자고 권하자, "아니요. 그렇게 땀 흘리는 일은 쌍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양반들은 안 한다"고 거절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노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던 사회상을 잘 나타내 주는 일화이다.

그런 한국에 기독교와 함께 서구 문명이 들어와 넓은 세계를 보여주며 또한 노동의 신천미를 가르쳤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한마디는 5천년의 역사를 바꿨다.

조물주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다. 남녀 노소가 모두 일해야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가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는 한국 근대화의 효시가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또 빨리 하는 나라로 주목받고 잘 사는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민 1세대 역사가, 새로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기에, 오늘날 미국 내의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빨리 경제적으로 주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류사회의 선두 주자가 된 것이다.

내 친구 홍 선생은 독특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공존한다고 본다.

그는 가능한 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잘 살려는 사람, 적당히 일하고 놀며 몇 명의 친구들을 가까이 두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 가능한 한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려는 사람 등의 세 가지로 나뉘었다.

홍 선생은 70년 대 초 미국에 와 일본인 밑에서 남미인들과 더불어 정원사 일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그곳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자기의 노년을 설계한다. 그러나 일부는 돈이 생기면 그 다음 날부터 놀고 그 돈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일하러 나온다. 자기는 이런 생각이 있었단다. 물론 돈도 필요하

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술을 잘 배워서 언제인가 자기도 집을 갖게 될 때 멋지게 가꾸리라 하는 것과 장차 자기 사업체를 갖는 것.

홍 선생은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기술을 배웠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의 혼을 불어 넣었다. 꽃 한 포기라도 다듬어도 어떻게 더 예쁘고 건강하게 키울까? 나무의 가지 잘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하며 성심성의껏 일을 했다. 몇 년 그렇게 하자 정원 주인들이 매우 좋아하며 다른 집들을 소개해서 일감이 너무 많아 고민이 생기더라. 회사 주인은 은퇴하면서 그 회사를 홍 선생에게 넘겨 주었다.

과스칼의 말이 연상된다. 거미는 그물을 쳐놓고 놓고 있다가 무엇이 걸리면 달려들어 잔인하게 먹어치우는 곤충이고, 개미는 열심히 일해 먹을 것을 쌓아 놓고 추운 겨울을 잘 넘긴다. 벌은 꿀을 찾아 몇 십리 날아가 꿀을 따와 자기 먹이는 물론 약으로 또한 음식으로도 사용해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생기가 있고 이끼도 끼지 않는다. 흐르는 물의 압력을 이용하면 전기를 생산해서 어두운 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기계를 작동시킨다. 자신이 열심히 활동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아지겠는가!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 자폐 · 무감각 증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방세환(20세, 한국)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 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 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미국)
중풍 · 마비 · 당뇨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민명자(65세, 한국)
일본 원자력 피해	선천성 뇌하수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허반신 마비, 간질, 정신박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고 말함.	토요타 유리트 2세(일본 제바) 090-9934-2333
자폐증	7세 남자아이 가 자폐증으로 셀라 케어 복용후 호전됨.	지민 엄마(미국) 616-822-4627
혈소판	3살년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100-400)로 돌아옴.	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
방광암 · 임파선암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을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한계방광적출, 1개월시한셀라케어 1년 복용, 암세포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나카지마성(일본 군마정 다카사키) 080-3556-1951
간에 생긴 종양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바야시 어머니가 약사님.	고바야시(32세, 일본 요코하마)
녹내장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 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검진됨.	빅토리아(59세, 일본 동경) 8180-1330-2069
취장	취장에 울룩.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
식도염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이은선(미국 MI) 616-822-4627
간질	16년동안 매일 여러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함.	Eunice Park(미국) 213-604-1992
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지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
파킨슨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줄 아져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John Kim(미국)
심장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분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Mr. Yoon(58세, 미국)
백혈병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검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Petra(미국) 708-296-2085
반신불수 · 욕창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달 후부터 몰라보게 좋아져 조금씩 걸음.	박경숙 (82세, 미국)
전립선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Tomas Park (92세, 미국)
심한엘러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정수지(61세, 미국) 323-774-1138
비만 · 우울증 · 야뇨증	여러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Sam Yang(11세, 미국)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Mrs. Kwak(미국)
방광암 · 전립선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토요타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
약물중독 · 우울증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강아지 백혈병 · 피부병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료 필요없게 됨.	김인숙 213-760-5699

건강과 성경 이야기 54

오늘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복부비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숨을 후~ 하고 내뿜 상태에서 허리둘레가 여성은35인치 남성은 40인치 이상이라면 미국의 기준치로 볼때 복부비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복부 비만이라도 피하형과 내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하형은 배 가죽 피부 밑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으로 즉, 복강과 배 가죽 사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형태를 말하고, 내장형은 위장의 주변과 장기와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한 내장형 복부 비만이라면 배탈에 대한 걱정을 가져야 합니다. 배탈을 빼기위하여 윗몸 일으키기와 진동벨트로 배를 진동시키는 방법 또는 심하게는 관장을 하시는분도 있지만, 이방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는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식욕을 없게 만들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식욕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열량 섭취를 높임으로 비만하게 만듭니다. 100% 지방으로 이루어진 뱃살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를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보신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6절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일꾼을 설명 하시면서 출애굽기34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왔을때, 하나님과 40일 있었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문과 첫번째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율법이며, 두번째의 영광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며, 죽이는것이라는 것도 로마서 5장13절의 율법을 이야기 합니다. 즉 이급의 전체내용은 사도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으며,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28절로 26.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 하셨더라 27.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28.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홀쇼핑	714.496.7887	시애틀	206.331.6655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지류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들, 교계 현안 논의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독교 지도자 대회’ 개최



이날 참석한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국 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슬람과 동성애 등,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놓고 논의 및 기도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영선 목사, 이하 경기총)는 22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 초청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그리스도의 통일’(엡 1:10)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강영선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오다가 분열과 타락으로 위기 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다시 한 번 뭉쳐서 대한민국과 기독교 문화를 선도 하자는 큰 꿈을 갖고 모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총 수석상임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금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엄

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연합기관들이 분열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각 지역 교계 대표들과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연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연정을 도입하고 나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로 전국 각 도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최근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경기총으로 통합된 것도 도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다”고 밝혔다.

이날 1부 연합기도회는 소강석 목사의 사회, 조영한 목사(서울교시협 의회 회장)의 대표기도, 강영선 목사의 설교, 배정식(총북기독교연합

회 회장)·이승일(울산기독교연합회 회장)·권정호(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특별기도, 맹연환 목사(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의 합심기도, 정찬수 목사(경기총 사무총장)의 소개 및 광고, 문수석 목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특별 기도 시간에는 ‘진정한 광복과 평화 통일’, ‘한국교회 연합과 진리 수호’, ‘17개 광역시·도의 부흥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2부에서는 현성길 목사(제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가 기도하고 비공개 특강이 있었다. 3부 오찬에서는 최갑규 목사(전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기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전국 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목 모임을 통해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여운 결집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류재광 기자

대한성서공회, 제123회 정기이사회 개최

신임 이사장 이정익 목사, 부이사장 손인웅 목사 선출



대한성서공회 제123회 정기이사회가 26일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성서공회 제123회 정기이사회가 26일 오전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김상현 목사(예정합동)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그리고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이정익 목사, 부이사장에 손인웅 목사, 서기에 이용호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 실행위원에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김현배 목사, 정하봉 목사, 우창준 목사, 한규동 목사가 선임됐다.

권의현 사장은 보고에서 “금년 상반기 국내 성경의 보급 부수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하여 9,656부(2.5%)가 증가한 396,148부”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319,984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총 8,504,119부가 보급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성경 9,957,969부를 포함하면, 1천 8백 5십여만 부의 개역개정판 성경이 보

급된 것이다.

해외성서보급에 대해서 권 사장은 “금년 상반기 동안 91개 국가에 124개 언어로 총 3,100,544부의 해외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밝히며 미지리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 및 모금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지리성서공회들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 동안 가나,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우간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우루과이, 라트비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요르단, 폴란드, 헝가리 등 총26개 국가에 143,955부의 성경을 제작 기증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권 사장은 “2012년 12월 가정 ‘새한글 성경전서’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4월 말 현재 기초 번역은 93%가 진행되었고 25%의 번역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했다.

이동윤 기자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서울 갈보리교회서 열려



한국교회 영광의 회복과 통일을 위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영광의 회복과 통일을 위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가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4길 갈보리교회(담임 강문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성회 인도는 한사랑선교회 대표인 김한식 목사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회개 및 십자가의 도 ▲연합 ▲통일 ▲부흥을 주제로 진행됐다.

미스바 기도성회 관계자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엘리제사장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한다”며 “원인은 바로 십

자가의 도를 상실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내 눈이 눈물로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애2:11)라고 하였다. 우리도 이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자”고 말했다.

기도회에 앞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회장인 한창영 목사의 사회 아래 김진호 목사의 기도, 대전직장인선교합창단의 특별찬양, 강문호 목사의 설교, 최윤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 기도성회는 ‘한국교회 미스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주최, ‘대각성 기도성회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윤근일 기자

기성 총회장 유동선 목사, 부총회장 여성삼 목사 선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제109년차 총회가 전주바울교회(담임 원팔연 목사)에서 26일 오후 개막한 가운데, 둘째 날인 27일 오후 회무시간 임원 선거가 진행돼 총회장에 유동선 목사, 부총회장에 여성삼 목사(천호동교회)와 성해표 장로(예동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 이었던 유동선 목사(춘천중앙교회)가 단독으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경선이 실시된 목사 부총회장에는 여성삼 목사가 1차 투표에서 521표를 획득, 215표의 오성택 목사(남전주교회)와 151표의 신상범 목사(새빛교회)를 압도했다. 전체의 2/3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가 진행돼야 했으나, 나머지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여 목사의 당선에 확정

됐다.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3차 투표 끝에 성해표 장로가 김춘규 장로(청계열린교회)와 신옥우 장로(순천교회)를 제쳤다.

유동선 목사는 “지난해 아내가 ‘사람 얼굴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했는데, 올해는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려올 때 박수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며 “총회장이 되어 109년차 총회를 이끌 텐데,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단’이 되도록 직임과 역량을 다하겠다. 기도해 주시고 적극 후원해 달라”고 전했다.

이 밖에 서기에 최영결 목사(장유교회), 회계에 이봉열 장로(정음교회), 부회계에 임평재 장로(서산교회)가 각각 단독 입후보해 무난히 당선됐다.

이대용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기드온 기도클럽 창립모임이 25일 다니엘기도원에서 열렸다.

미 동남부 '기드온 기도클럽' 창립

30여 목회자들 모여 다니엘 기도원에서 창립예배 드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4)

‘기드온 기도클럽(회장 장영일 목사)’ 미 동남부 1차 모임이 25일 오전 다니엘 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회장 장영일 목사를 비롯해 일반 성도, 장로, 사역자 등 각각 기도의 용사들 총 30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기도의 능력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장영일 목사는 “성도에게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중생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사와 관련된 것은 오직 기도 밖에 없다”며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자식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주지 않는 부모는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게 된다. 의인의 기

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실 것이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드온 기도 클럽 회원들은 ▲조국 통일, 교회갱신, 부흥을 위하여(김종현 목사/한뜻사랑교회) ▲미국의 경제, 윤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김영주 목사/아가페교회) ▲‘성령사관’ 아카데미’ 개교를 위하여(정윤길 장로/Lookout Mtn 교회)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정성기 선교사)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했다.

이번 ‘기드온 기도클럽’ 창립에 대해 장영일 목사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오늘의 상황에서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꺼내 들고, 육체의 항아리를 깨뜨린 다음,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어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겨야 한다. 기드온 기도클럽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다.

윤수영 기자

청년들이 심고 온 아이티의 ‘희망’

연합장로교회, 50년 후의 아이티 청소년들 기대하며 복음 증거



연합장로교회 InCom청년부의 아이티 단기선교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서석훈 InCom청년부 담당목사를 포함한 12명의 청년들이 지난 9일-16일, 아이티 내 라 고나베(La Gonave) 섬에서 단기선교를 실시했다.

수도인 포트프랭스에서 뱃길로 1시간 거리인 라 고나베 섬은 과거 유배지와 같은 곳으로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 태양력 판넬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개념도 없어 수인성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등 현지인들조차 들어가기 어렵 정도다.

청년부가 실시한 중점사역은 ‘전도를 위한 공연사역’과 청소년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사역’이었다. 아이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조차 기성세대들에게 판매해 있는 패배의식과 게으름, 그리고 부도교의 영향으로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합교회 측은 기성세대가 아닌 청소년들을 주목하고 있다. 50년 뒤를 바라보며, 아이티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고자 학원사역과 병원사역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현지 감성은 선교사(한국 누가회 소속)와 협력해 학원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진행했다.

세 곳의 학교에서 1시간 짜리 공연(그림자극, 태권도, 바이올린 연주, 스킷,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

였고, 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나눠주기도 했다. 이들은 평생 처음 가져보는 사진이기도 했다. 영적인 방해도 적지 않았다. 잘 작동하던 방송장비가 작동이 안 되고, 공연 중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에서 균중 일부는 환호를 하기도 했으며, 공연과 연주 중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오히려 신선한 충격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다고 청년들은 강조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태권도와 복음을 접목한 마인드 체인지 프로그램인 ‘Yes we can in Christ’를 시행했다. 이것은 앞으로 InCom이 아이티 선교에서 캠페인처럼 진행하게 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다. 단적인 예로 ‘아이티는 쓰레기 천지다. 이로 인해서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인식을 통해 태권도 훈련 하루 만에 주변을 청소하고 아이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났다. 희망이 없던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60년 전, 실상을 소개하면서 아이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계획이 있음을 함께 기도하였다.

한편, 청년부의 아이티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는 보건소와 청소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건물을 짓는 것이다. 작년부터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헌금하여, 현재 부지를 구입 중에 있다.

앤더슨 김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아침학교 / 토요새벽 - 171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 LASA대안학교(6기)와 라파예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섬기며, 선교영향을 증진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71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주일에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학생 청년부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에배 오전 11:00 박성도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받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으로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현연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류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환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2932-0788 / kuinholby@hanmail.net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이찬년부 오후 1:3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박현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찬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월)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영아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신현호** 담임목사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요일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김세함**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믿음,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정 (정부 배너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류종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EM 2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스.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산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삼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함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 45)
1. 민족을 넘어서 2. 산악을 넘어서 3. 국경을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달린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 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n.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8: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레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곽택근 담임목사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희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호년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다니엘 김 선교사 초청 집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크로스포인트처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엘 김 선교사 집회, 매일 저녁 1천명 청소년들 참석해 은혜받아

예수세대운동(JGM: Jesus Generation Movement)을 이끄는 다니엘 김 선교사 초청 집회가 지난 22일-24일까지 크로스포인트처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집회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는 거침없이 강하고 유쾌한 입담과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집회에는 매일 저녁 1천 여명이 넘는 종교동부 학생들이 모여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했다.

집회 첫째 날인 22일, 다니엘 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응답할 것인가?'를 주제로 설교했다. 김 선교사는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 종교는 내가 잘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은 것이다"며 "침자가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복음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고 느낄 때 쉽게 낙담하게 된다.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낙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긴다. 이는 긴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이다. 이 약속은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 시키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선교사는 "성경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절대대로 하나님이지 하지 않으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고 느낄 때 쉽게 낙담하게 된다.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낙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긴다. 이는 긴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이다. 이 약속은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 시키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선교사는 "성경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절대대로 하나님이지 하지 않으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고 느낄 때 쉽게 낙담하게 된다.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낙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긴다. 이는 긴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이다. 이 약속은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 시키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선교사는 "성경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절대대로 하나님이지 하지 않으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고 느낄 때 쉽게 낙담하게 된다.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낙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긴다. 이는 긴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시애틀한인장로교회 김범기 목사 취임예배가 열리고 있다.

시애틀한인장로교회 김범기 목사 취임 예배

열방에 예수의 꿈 전하는 교회 되고자

지난 24일 시애틀한인장로교회는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김범기 목사를 담임목사로 맞았다. 이날 행사는 취임예배와 더불어 김상구 원로목사의 송별식도 겸하여 진행됐다.

김범기 목사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출발을 다짐하며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며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과 이면자 삶의 고단함을 어루만지며 더불어 사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범기 목사는 "시애틀한인장로교회는 42년이라는 장년이 됐다"며 "세상을 향한 분명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 나눔을 전하는 거룩한 장년교회로 헌신하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는 강요한 목사의 사회로 전

해의한인장로교회(KPCA) 총회장이자 현 서북노회장인 강대은 목사가 설교하고 전 KPCA 서북노회장이었던 변인복 목사(시애틀 큰사랑교회)가 관현했다.

강대은 목사는 "갈렘이 남긴 유산"(수 14:6-15)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새로운 담임목사와 새롭게 출발하면서 영적 사명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건중 집사, 박관빈 집사가 특송했으며 김상구 목사가 축사와 송별사를 전했다. 이날 취임예배는 강요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브라이언 김 기자

뉴욕교협 제30회 체육대회 개최

메모리얼데이에 펼쳐진 스포츠 화합의 시간

제30회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이하 뉴욕교협) 체육대회가 메모리얼데이인 25일 코로나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뉴욕성결교회, 하크네시아교회, 뉴욕주는교회, 뉴욕에일장로교회, 뉴욕성서교회 등 11개 교회에서 배구와 족구 총 29개 팀이 참여해 운동을 통한 화합을 다졌다.

뉴욕교협은 매년 메모리얼데이에 맞춰 체육대회를 열고 회원교회들 간의 단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교협에서 매년 개최하는 이 체육대회는 날씨도 늘 화창하게 이어져 휴일을 맞아 회원교회 성도들 간의 기분 좋

은 경쟁과 화합이 이어지면서 친목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뉴욕교협 체육대회는 유스(youth) 그룹 등 한인 2세대들도 함께 참여한다. 뉴욕교협 행사 중 이 체육대회는 2세대들이 성인 1세대들과 함께 참여하며 세대간 소통이 이뤄지는 유일한 기회 중의 하나로 1세대와 2세대의 화합의 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선수단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에 임했고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함께 나눴다.

함영환 기자



연설 중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편안한 기독교 없어, 담대히 진리 외쳐야

예루살렘서 열린 성령강림주일 행사 '임파워21 글로벌 콩그레스'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콘퍼런스'(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NHCLC) 사무엘 로드리게스 회장이 "편안한 기독교'(comfortable Christianity)는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외치라"고 역설했다.

성령강림주일인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열린 '임파워21 글로벌 콩그레스'(Empowered21 Global Congress) 연설자로 나선 로드리게스 회장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바뀌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지만, 부흥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오늘날의 안락함은 우리를 내일의 포로로 만든다"고 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로드리게스 목사는, 최초의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말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의 베드로는 동일 인물이다. 그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리 가운데 숨었으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자 조용하는 이들 앞에서 담대히 일어났다"면서 "편안한 기독교와 같은 것은 없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아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성령은 우리의 안락함과 무관심을 몰아낸다.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일어나 진리를 외쳤다. 베드로 때와 같이, 고소자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인내심이 없고, 편견이 매우 심하며, 무관심한 이들'이라고 조롱한다. 스테판 때와 같이 적들은 우리를 위협·박해하며, 십자가의 사람들인 형제와 자매들을 살해한다.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일어나 방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는 성령강림주일 예루살렘에 있다. 감정적 구조나 종교적 패리다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 우리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성령께서 교회에 어떠한 능력을 주실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서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기독교는 없다. 조용한 오순절은 모순이다"라고 전했다.

예루살렘 파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이 집회는, 70여 국가에서 온 4,5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혜진 기자



일본성공회 나라기독교회

日 나라기독교회, '국가중요문화재' 선정

전통적 요소 구사하고 균형과 디자인 우수

일본성공회 나라기독교회가 일본 나라현 내 기독교 건축물 중 처음으로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나라기독교회는 1885년 미국 출신의 선교사와 일본인 크리스천에 의해, 나라현에서 기독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1930년경 지금의 장소에 교회당이 들어섰고, 설계는 당시 교회 성도였던 목수가 했다.

문화심의회는 "오랜 건축에서 착상한 각 요소가 정교하게 구성됐고, 각 부분

의 균형과 세부 디자인이 우수하다"면서 "전통적인 요소를 구사한 교회당으로 완성시킨, 쇼와 초기의 근대 일본식 건축물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라기독교회 이다 이즈미 사제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고 세계의 평화와 영혼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장소로 보다 더 많이 이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현 기자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 통한 합법화는 세계 최초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국가가 됐다. 가톨릭 영향력이 강한 아일랜드 특성상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 가톨릭의 목소리가 약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영 RTE방송은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 찬성 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 투표 비율을 웃돌았다는 선거당국의 발표를 보도했다. 이로써 아

일랜드는 동성결혼을 국민투표에 의해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미국을 비롯해 19개 국가에서는 의회나 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왔다.

한편,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는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일랜드 대주교·주교들은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 교회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 결합으로 정의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이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근일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목요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최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래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오병의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bl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여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담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a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처부, 유초등부, 종교동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렘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철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기쁨을 사모게 함으로 변화될 받아
하나님의 선한 소식과 기쁨을 사모게 함으로 변화될 받아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목사 회장 주혁모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종교동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틴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틴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 309-7551
Pastory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김민재 담임목사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vd.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Cell), (562) 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모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경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찬양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꾸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제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서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속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러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교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뇌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옴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재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담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KOBE PEARL LAS VEGAS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펼치는 지상최대의 진주보석쇼

불황타개 긴급제안!!!

현금회전 원가파괴

초대박세일!!!

2줄, 3줄
진주목걸이
한정 대세일

2015년
기획상품

홍산호, 에메랄드, 루비, 자수정등
1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유색 롱비드 2줄 진주목걸이

reg. \$2999 ▶ \$1299

\$599 부터

합성 유색보석과 천연양식진주 제품입니다.

**명품 아코야진주
초대박세일!!!**

Helen Aiko

아코야진주 1줄 목걸이
(6~6.5mm)

\$1599 > \$799 > **\$499** 부터

아코야진주 2줄 목걸이
(6~6.5mm)

\$2599 > \$1599 > **\$999** 부터

천연 양식 해수진주, 남양진주, 아코야진주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인 가격대의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등 3000여점의 제품을 진주전문업체 고베펄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015년 신제품
펜던트, 브로치등
초대박세일!!!

\$99 부터

JEWELMAT

진주보석 전문회사 고베펄에서 2년여의 각별한 준비
온열과 자수정보석이 함께한 고베 주얼 매트 탄생!

잠만 자도 저절로 병이 힐링되는 잠자리, 자수정 '고베주얼매트'
고베주얼매트가 힐링 자수정 매트로 입소문 나 인기폭발!

고베주얼매트
프로페셔널

KOBE HEALING MAT PRO
SIZE: 700 x 1880 cm
WEIGHT: 15kg **\$1999**

고베주얼매트
싱글 사이즈

KOBE HEALING MAT SINGLE
SIZE: 1000 X 2000 cm
WEIGHT: 17.7kg **\$2799**

고베주얼매트
더블 사이즈

KOBE HEALING MAT QUEEN
SIZE: 1500 X 2000 cm
WEIGHT: 30kg **\$3499**



KOBE PEARL LAS VEGAS

고베펄 진주보석쇼 행사일정 안내

문의 전화 213.590.5283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가든그로브 Garden Grove

일정: 2015년 6월 7일 일요일, 단 하루

장소: 라마다플라자 Ramada Plaza 2층 퍼시픽룸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다이아몬드 바 Diamond Bar

일정: 2015년 6월 9일 화요일, 단 하루

홀리데이인 Holiday Inn Diamond Bar 1층 Gateway 2 & 4
21725 E. Gateway Center Dr. Diamond Bar, CA 91765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1

2015년 6월 10일 (수) 부터 12일 (금) 까지 (3일간)

월셔 아로마센터 Aroma Wilshire Center - 5층
3680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0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2

2015년 6월 13일 (토) 부터 14일 (일)까지 (2일간)

로텍스호텔 Rotex Hotel - 2층 "Banquet Hal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amgreensolutions.com

엠그린의 '닥터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시스템의 공급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Amount Due **\$23.38**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Electric Charges	3/4/14 - 5/5/14	152 KWH	\$23.38
Water Charges	3/4/14 - 5/5/14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322.98**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이단 속에 살아남은 재래적 생사관

새로운 종교 속에 재래종교적 요소가 혼합되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래종교적인 요소가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적 요소가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혼합주의'로 국제적으로 이단이 된 통일교에서 발견되며, 그의 영적 기원이 되는 초기 메시아 운동의 교주 김백문부터 오늘의 기독교 이단들 속에 재래무교적 강신신앙과 사후귀신론, 인간신격화와 신인결합사상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

김백문이나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인간이 되어 자녀들을 출산해야 하는 인류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신인결합사상, 인간신격화, 귀신 숭배와 메시아 운동을 위해서 교리가 구체화되어 있다.

I 통일교의 원조 김백문의 무교적 생사관

무교의 귀신신앙은 한국 초기 기독교 이단인 김백문에게 전승되었다. 박태선과 문선명의 스승인 그는 경기 파주에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우고, 철학체계가 없던 무교의 교리를 기독교 교리에 기대어 대강 체계화하였다. 김백문의 인간관은 그가 『성신신학』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사람과 '신령과의 실제적 상관'을 체험적으로 가진 신학이다.

그러면 그의 신령과의 체험에서 나온 인간관은 무엇이며, 그가 말하는 3위1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성신위 격으로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속에 임류함'으로써 '각 위가 윤회적으로 역할하신다'고 한다. 그는 신의 '세 가지 역할(전부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완성 역할)'을 주장하며, 성령이 하나님의 1위신인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3위1체신의 제1위'라 하고, 이 하나님이 '제2의 아담'으로 변하여 인류의 '종조(宗祖)가 되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는 3위일체론을 양태론과 범신론으로 왜곡시키려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은 '신의 자녀를 위한 새로운 신적 혈통의 시원'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신적 혈통'이라는 말 속에는 그의 저서들이 밝혀 주는 무교적인 강신 체험과 출산신앙, 그리고 마귀적인 범성욕주의(Pansexualism)가 결합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통일교에 전승되어 완성되었다.

단군신화에서 묘사되는 단군의 신적 기원과 불사신앙 및 신선신앙

과 병행하여 김백문은 이 땅에서 신적 혈통을 이루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교리를 만든 것이다. 김백문의 강신교리와 출산신앙을 차례로 살펴보자.

a. 강신교리

김백문은 성신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성신이 '그 속에 임류'하여 에덴 타락 전의 아담 인격을 복귀한다고 한다. 이 사상은 문선명의 강신사상도 마찬가지이다. 김백문은 이렇게 '신과 사람이 일체되는 것'이 영생 자격을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영생이 취득되는 줄 아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성신 받는 것'을 '신과의 현실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고 '성신 내림을 체험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됨을 체험한다고 한다. 또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은 '성신이 수령자 안에 임류'하고 동시에 '수령자가 성신 안에 임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성신'은 한 번 임류한 수령자의 심령에서 영원히 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리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 기록된 김백문의 '성신관'은 무교적인 귀신체험을 통한 그의 강신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b. 출산신앙

김백문의 생사관은 그의 구원관에서 나타난다. 그는 '생식'을 '영생적으로 종족으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죄악이 유전된 혈통으로 나지 않는 자녀라고 하며, '혈통절단'을 통해(예를 들면) '박씨 자손'이 '예수의 혈통성'으로 새로 나아 할 것을 가르친다. 예수의 혈통을 받기 위해 기존 혈통을 절단하여 처자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독생자에게서' 제2, 제3의 자녀가 번식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다.

인간의 피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혈통이환'을 해야 되는데, 그는 이것을 '점불임'이라 설명한다.

김백문은 이상과 같이 혼인과 출산의 도식 위에 '혈통이환'-속칭 피가름-이라는 신비적이고 육체적 결합이라는 예식(체례)을 통해 신적 혈통을 받은 자손을 번식하여, 누구나 이 종자를 받아야 하는 '만인 구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김백문의 이러한 신앙은 고대 근동 지방의 '거룩한 혼인'이나 가나안 출산신의 상징이던 송아지 숭배,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장

한국 무속 문화에서도 발생한 건국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이성관계적 신인결합사상과, 출산신앙을 그대로 간직한 것과, 무교적인 강신의 신비, 즉 귀신 숭배와 그 체험을 기초로 하여 교리화한 무교의 교리이며, 동시에 혼음 교리이다.

이 원리에 의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인간이 되어 자녀들을 출산해야 하는 인류의 조상으로 소개하였다.

그의 제자 문선명은 그의 교리를 그대로 전승하여 신과 가치가 동등하다는 '참 부모'로 등장하고, 수천명씩 합동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재림주 역할을 하는 국제 이단으로 성장했다.

김백문에게 전수된 무속적인 영혼불멸신앙과 강신신앙과 신적인 간관은, 자칭 기독교라는 문선명의 통일교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 통일교의 인간관과 생사관

문선명의 영적 스승 김백문에게서 뚜렷하지 않았던 인간의 생사관은 문선명에게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선명의 가정 배경은 무교적 농가였다. 그의 형인 용수는 정신질환으로 죽고, 그의 누이도 정신이상이었다. 이 일로 그 가정은 기독교로 옮겨가게 된다. 그는 한풀이 무교적 배경에서 '한 맺힌 하나님'과 '한 맺힌 예수님'을, 그리고 귀신의 강신 현상에서 '성령'관을 얻게 되었다.

그는 16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예수의 못다 이루신 일을 계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죽은 영혼, 즉 귀신과 접하듯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만났다고 한다. 그가 만났다는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몸 없이 떠도는 '죽은 혼'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무당이 죽은 영들을 만나는 것같은 것이다. 여기서 사후에 귀신이 된다는 무속신앙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문선명은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신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며, 모든 인류가 신이 되려면 예수님이 부인을 맞아 '참 부모'가 되어 타락한 인간을 중생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실제적 삼위일체가 되게' 한다고 함으로써,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영혼이나 죽은 영혼들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자.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도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 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망 부분을,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상인들이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위의 글은 무교의 귀신관이나 강신체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문 교주는 인간의 육신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도, '마음'에 해당되는 '무형 실체의 존재'라고 하는 '영인체'는 무형 실제 세계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는 육신의 죽음이란 '웃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는 것'같이 육신도 노쇠하면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며, 죽음이란 죄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창조 원리라고 한다.

그러나 육신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죽은 영인체가 강신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귀신들의 강신 내지 접신 형태를 통일교에서는 '재림'이라고 한다. 그는 재림한 귀신들이 산 인간의 몸 속에서 성장 완성되니까까지 자란다고 한다.

문선명은 구약 시대에 죽은 영혼들이 메시아 감람 후 전부 지상에 내린다고 주장했다. 문 교주는 그 예로 말라기 4장 5절, 마태복음 11장 14절과 17장 13절을 들며, 예수님도 '재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재림하여... 협조'하였다고 한다. 세례 요한의 육신은 곧 엘리야의 육신의 대신(代身)이 되었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재림 엘리야로 온 분'이라고 한다.

문 교주는 원리해설에서 강신 현상을 더욱 명백히 나타냈는데, 악령인체는 악한 지상의 영인체에 들어오고, 석가나 죽은 불교 신자의 영은 불교인과 접하고, 공자나 죽은 유교 신자의 영은 유교인과 영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는

영인들과 교통'하거나 '예수님과 직접 면접'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비율', '베드로', '감람나무', '생명나무', '미륵불', '공자', '최수운', '서산대사' 등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역시 이러한 영인들이 그 개체를 협조하기 위하여 재림한 까닭이라고 한다.

문선명은 사도행전 2장 17절, 유다서 14절, 누가복음 1장 17절도 모두 무교적으로 풀이한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행 2:17)'를 그는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많이 부어 줄 것이니...'라고 하며, 말세에는 아버지의 영을 많이 부어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문선명에게는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귀신이고, 그와 대화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몸없는 한 귀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초대 미국 선교사였던 김영운 역시 비율이 다메섹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이 분쇄된 하나의 죽은 귀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인들은 인간의 영적 수용력(geistige Kapazität)을 복구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죽은 귀신인 '예수'의 계시를 받은 문선명에 의해 세워졌고, '성신'과 귀신을 혼동하여,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공생하는 죽은 사람의 영들을 '성신'이라고 설명하는 바와 같다.

보잘것없는 하나의 이단 속에 이와 같은 강력한 귀신신앙이 구절구절 자리잡고 있음을 볼 때, 전통종교의 신앙적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된다.

위와 같은 무속신앙은 일부 기독교인의 생사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1년 2월 7일부터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WCC 총회에서 이화여대의 정현경 박사는 버림받은 애 굶인 하갈의 영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영과 더불어 20여 한 맺힌 영들을 함께 초청하면서 '성령이여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신학정책협의회(1991,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과 죽은 사람의 영과의 관계를 "붉은 장미와 그 붉은 빛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고 세상에서 유일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무속 문화권에서 이와 같이 몸 없는 영혼의 불멸 사상에 의해 일종의 귀신론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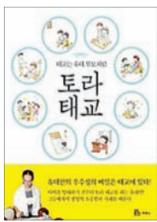
신간 추천

5월 기정어디

토라 태교

이영희 | 두란노 | 319쪽

저자는 유대인의 위대성을 '태교'에서 찾고 있다. 유대 여성들은 여호와와의 마음이 '반사'된 토라(모세오경)를 가장 완전한 책이라 믿고, 임신과 출산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보물로 여긴다. 그들은 어머니가 토라를 마음에 간직하면 당연히 좋은 태교가 되며, 거룩하고 순결한 젖을 먹이게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저자는 토라에서 찾아낸 유대 부모의 8가지 태교법을 책에 담았다.



마음으로 훈육하라

사우나 사피로 · 크리스 화이트 | 길벗 | 300쪽

가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으로 '마음 쟁김'을 소개한다. 이는 일종의 통합 접근법으로, 관계 중심 훈육을 말한다. 마음 쟁김이란 애정과 호기심 어린 태도로 현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모는 마음을 열고 아이와 함께해야 한다. 마음 쟁김 훈육을 통해, 자기 절제력과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부모는 말 안 듣는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올바른 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딕 호이트 · 던 예거 | 라이스메이커 | 248쪽

뇌성마비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자신은 그 뒤에서 밀며 마라톤대회 폴코스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아버지'의 이야기. 몸은 불편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역경을 이겨낸 아들과,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담았다. 이 책은 "아빠와 함께 달리고 싶어요!" 개봉영화 <뽕큐, 대디>의 원작이다.



성품스쿨

김재욱 | 생명의말씀사 | 176쪽

그 동안 아이들에게 정직이나 배려 같은 덕목보다 경쟁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가르쳐 왔다. 그리하여 왕따, 학교 폭력, 자살 문제 등이 생겨났고, 청소년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는 인성 교육에 눈을 돌려, 건강한 성품을 가진 청소년들을 기르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품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말한다.



REVIEW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성경적 로드맵

'광야'를 알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인생의 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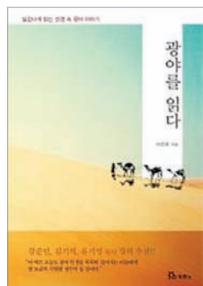
성경은 광야이야기로 가득하다. 우리의 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되신 하나님은 암갈색의 빛바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 굳게 닫힌 광야의 자물쇠를 열라. 당신의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인생을 흔히 광야로 비유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힘겹고, 위태롭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광야의 여정이라도 누군가는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능숙하게 임하는 이들이 있다. 이 책은 광야 전문가 이진희 목사가 수 차례에 걸쳐 직접 광야를 경험하고 답사하며 얻은 나뭇가지의 지식과 지혜

를 가지고 광야 순례자들을 가이드 하고 있다.

성경의 광야, 인생의 광야, 실제하는 광야를 대비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조언은 길을 잃고 지친 이들 뿐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이들까지도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칠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생각된다. 특별히 신구약을 잇는 역사적, 지리적, 성경적 해석은 읽는 이들에게 광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1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광야를 설명한다. 양, 나침반, 오아시스, 낙타 등 광야 하면 쉽게 떠올



광야를 읽다 이진희 | 두란노 | 232쪽

릴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과 베두인, 이슬, 시냇나무, 백합화 등 다소 낯선 것들을 한데 모아 목사로

서, 또 광야 전문가로서의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견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야에 대한 정보와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이 광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탐독자들에게, 삶의 힘겨운 고비 속에 신음하며 길을 찾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시원한 청량수가 되길 바란다.

이진희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대학원(Th.M.)을 거쳐, 오랄 로버츠 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 M. A., D. Min.)를 졸업했다. 현재, 미국 달라스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성서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다.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는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고요히 스며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 속에 담긴 감추어 두신 보배를 한아름 선물로 받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며 한번쯤 읽어 볼 좋은 책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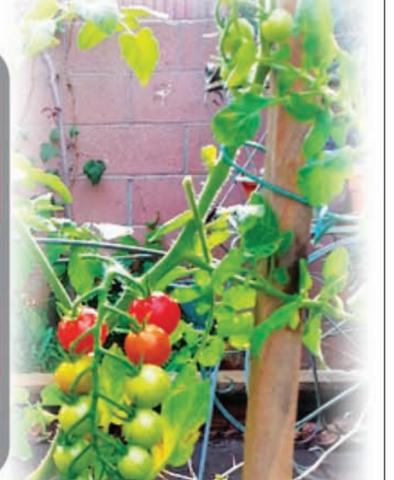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황선규 선교사 “평생 선교사” 출간

폐암 말기 진단받고 여생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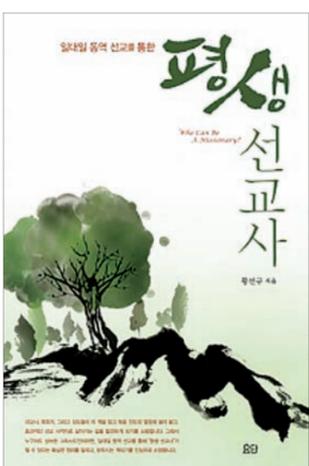
“나에게 하루의 삶은 기적입니다. 폐암 말기와 심장병, 전립선 질환까지 앓으며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찬란한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받은 은혜가 가슴 벅차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85세의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사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황선규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정리한 저서 “평생 선교사”를 출간했다.

이 책은 38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은퇴 후에도 전 세계를 순례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황선규 선교사의 눈물과 은혜의 간증을 담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은퇴 후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선교지의 영혼들과 동고동락하기를 선택한 과정,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후원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 고스란히 흐르고 있다.

황선규 선교사는 저서에서 각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며 일선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평생 선교사
황선규 | 요단출판사 | 208쪽

을 전하고, 1:1 동역 선교를 통한 전후방 선교사의 연합 선교의 힘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황선규 선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교 현장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평생 선교사’로 살 수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그 길이 바로 선교사의 길”이라며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길”이라고 선교사적 삶의 동참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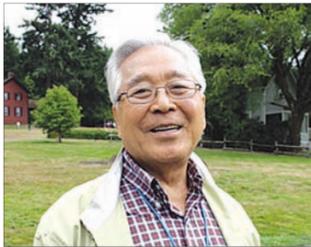
그는 “15년 간의 목회와 은퇴 후

1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임을 깨달았다”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주되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황선규 선교사의 저서 “평생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전문서적은 아니지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 전도의 효과적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일선 선교사와 목회자 성도들과 신학생의 선교 지침서로 권할 만하다.

한편, 황선규 선교사가 설립한 GSM선한목자선교회는 2002년 15명의 선교사에게 월 100달러 후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전후방 선교사 발굴과 지원을 통해 올해 연말에는 선교사 650명을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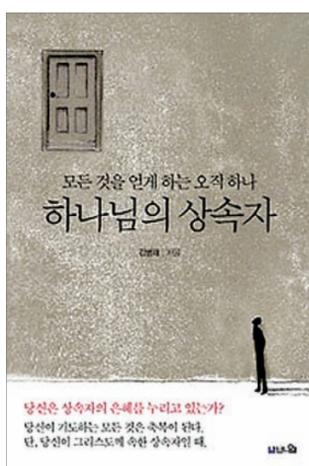
브라이언 김 기자



황선규 선교사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오직 하나”

노후대책보다 사후대책 설계해야



하나님의 상속자
김병태 | 브니엘 | 264쪽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산다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상속자’이므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 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장차 임하게 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생을 퍼즐로 비유하며 ‘우리 삶의 조각들을 모아 멋진 퍼즐을 완성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역설했던 전작 《하나님의 퍼즐》에 이어, 저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상속자는 아들이 누릴 유업을 갖고 있다’, ‘상속자는 아들의 신분에게 맞게 산다’, ‘상속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상속자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상속자는 의미 있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상속자는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상속자는 투자하는 것이 다르다’, ‘상속자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상속자에게는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등, 상속자의 삶을 10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는 유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이 세상은 단지 나그네 생활일 뿐이다. ‘지나친 내세 지향형 신앙’

도 문제이지만, 요즘은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나친 현세 지향형, 즉 ‘기복신앙’이 더욱 문제시되는 상황. 한 번쯤 새겨 들어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지나친 내세 지향형 신앙과 지나친 현세 지향형 신앙은 결국 같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상속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설령 이 세상에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싶지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시련 앞에 봉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저자는 베드로의 말을 상기시킨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성한 일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 4:12)’.

그러므로, 고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성경은 고난과 역경을 정도(正道)라고 말한다.”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고, 천국에 가서는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부진 욕심’을 갖는 것은,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일이 될 것이다. 고난에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노후대책보다 ‘사후대책’을 설계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리가 되었는가?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쏠렸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을 점검해 보라.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지,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온통 집중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염려하느라 염려마저도 미리 가뭇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분에 걸맞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탕자처럼 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아들의 신분을 갖고 하늘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 중요한 건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가정교회에 대한 조명,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 목회 노하우 담아

신약성경에 나온 교회의 형태인 가정교회가 현재의 한국교회에서 나타낼 가능성을 주목하는 책이 나왔다.

도서출판 두란노서원은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 20년 목회 노하우를 담은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신약적인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지난 20년 간 헌신해 온 최영기 목사와 휴스턴 서울교회의 가정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93년 23개로 시작한 가정교회 숫자가 최 목사가 은퇴하던 2012년 180여 개로 성장했으며, 주일 예배 장년 출석인원도 120명에서 1,000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최영기 | 두란노 | 264쪽

명이 넘게 증가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휴스턴의 한인 인구가 2-3만 명

밖에 되지 않고, 가정교회 특성상 수평이동이 아닌 대부분 불신자 전도에 의한 것으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두란노서원 관계자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지난 20년 간 최영기 목사의 모든 가정교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다.

저자인 최영기 목사는 “비신자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 신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정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부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균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iz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하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신체화자, 제막, 반죽공인내 전문)
junimedia.com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2. 전도용 실교서
3. 새가족 및 방문지 선물을 위한, 실교서시디앨범
4. 각종 배너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전도용품 세트 1,000세트 (\$180)
고급종이 10x15cm 10매,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선물용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환시여도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상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래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불어국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차구이 오리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디리빙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이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비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5th St. Carson, 9081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Korean Pastors Express Concern to the PCUSA

Pastors Write to San Gabriel Presbytery Regarding Dismissal of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The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Eastern Region of L.A. wrote, signed, and sent a letter to the San Gabriel Presbytery last week expressi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on the delay of the dismissal of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from the PCUSA, and requesting that the church be dismissed swiftly according to the Gracious Dismissal Policy that the Presbytery has established.

"We are ... confounded by PCUSA's unwillingness to comply with the very policy that it officially adopted," the letter states.

"The current impasse has been truly disappointing," it continues. "We are very concerned and worried over whether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San Gabriel Presbytery has unintentionally caused, fostered, or condoned dissension and conflicts by inexplicably delaying its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the finalization of GSPC's severance from the PCUSA."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held a vote in March of 2014 whether to leave the PCUSA, and 91 percent of the members voted in favor of leaving the denomination. However, the church has not been dismissed from the denomination, and the San Gabriel Presbytery instead determined that there is a conflict within the church due to a lack of agreement between the majority who voted to leave, and the minority who voted to stay.

The Presbytery then established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over Good Shepherd, and appointed Aidan Dongwoo Lee as the Moderator over the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Session.

This delay in the process of dismissal, the pastors assert in the letter, shows a disregard for the opinion of the majority.

"If the decision by the vote of an

overwhelming majority of GSPC's congregation is not respected because of a vociferous minority, then PCUSA's decision to accept homosexuals will not be respected and followed," the letter states.

"Both the decision of a majority of PCUSA members and the decision of a majority of GSPC members must be respected and followed. Otherwise, the credibility and integrity of PCUSA and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will be seriously questioned, and the seed of distrust and anger will be planted."

"If GSPC continues to experience the difficulties leaving under the Policy and, as a result, its membership decreases and its leadership is disparaged, our members will be forced to question PCUSA's integrity, which is more serious than the issue of homosexual ordination and the change of marriage definition."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also expressed their desire to meet with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other leaders in the denomination to discuss the matter in person.

Jae Ho Song, the senior pastor of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of Walnut; Sinyil Kim, the senior pastor of Union Evangelical Church; Seunghee Ko, the senior pastor of Beautiful Church; Jun Woo Choi, the senior pastor of Emmaus Presbyterian Church; and Paul S. Park, the senior pastor of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were among the pastors who signed the letter.

Korean churches around Rowland Heights, CA have held corporate early morning prayer meetings on April 28 and 29, during which some 300 lay members of various churches prayed together on behalf of Good Shepherd's peaceful and formal dismissal from the denomination, among other topics.



Living Way Community Church has been offering a seven-week course on Theology 1 for its lay members.

Living Way Community Church Members Dig Deeper into the Word through 'Life Academy'

For most church-goers, the extent of their biblical studies probably go as far as their daily devotionals, weekly church Bible studies, and Sunday sermons from their local church pastors. The more voracious Bible readers might go further by reading commentaries, articles, and analyses by theologians. Some may be hungry for more, but might see a seminary education as intimidating or inaccessible for various reasons.

Living Way Community Church, located near downtown Los Angeles, has been offering "Life Academy" for those very people within the church.

For a \$25 class fee, Life Academy offers a glimpse of what is offered in seminary education -- going deeper in such studies as systematic theology and hermeneutics -- and allowing lay members to go deeper into the implications and meaning of the Word.

Living Way recently concluded "Theology 1," the first part of Life Academy, on Sunday, which had been taught over the course of seven weeks with Dr. Mark Saucy, professor of Theology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Theology 1 covered the first part of systematic theology.

"We went into, first, what is theology, and then the attributes of God,

which, in our course, we covered God as love, God as a triune God, and God as holy," explained Michelle Lee, the chief of ministry and operations at Living Way.

"The vision for our church is to encounter Christ, experience His reign, and expand His kingdom," Lee said. "And we felt that Life Academy allows us to explore the aspect of experiencing His reign more deeply through Christian education -- experiencing more of who God is."

Each class included in-depth studies, as well as times to ask questions and discuss ways to apply the theological truths into an individual's life.

For example, the study of God as Triune explored the unique functions, deity, manifestations, and unity of God in the Trinity. Thereafter, Saucy went on to discuss what this means for an individual's personal walk with God as well.

"Unfortunately, to many Christians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s irrelevant to life," Saucy said. "Even in prayer and worship, most miss the supreme practical value of the Trinity that God has made his divine life available to all of his creatures."

"Prayer and worship of the Christian God is enabled by God's own indwelling and mediating presence," Saucy said.

Similarly, when discussing God as holy during the final class of Theology 1, Saucy discussed the multiple ways through which Scripture describes God's holiness -- God as light, as spirit, as one, and God's infinity with respect to time, space, power, and knowledge, but he also took time with the class to apply each of these aspects of God's holiness into personal faith.

The fact that God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time" and that "all exists for him at once," allows the Christian to trust in Him since "how He acts and what He promises today is what we can bank on Him operating as in the future," Saucy said. And God's omnipresence allows the Christian to know that "we are never out of His reach," and "there's never a place we can go where God is not already there," he said.

Though Theology 1 has now concluded, the staff of Living Way envision a four-year plan for Life Academy, in which the next course will be on hermeneutics from July to August. Theology 2 will be offered next spring.

"The members who have been taking the course appreciate it a lot," Michelle Lee said. "They love that they're able to go deeper into the Word and know God more deeply through this."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VII:

Lessons from the Journey of Pastoring in the Immigrant and Independent Contexts



Reverend Harold Kim is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located in Cerritos, CA. (Photo courtesy of CCSC)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CCSC) is an independent church that was birthed in October of 2011 from its status as an English ministry (EM) of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are familiar with the church as being one of the most successful churches to have transitioned from being an EM of an immigrant church to becoming an independent church.

The story of CCSC may be a subject of envy for Korean American pastors who are struggling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ut rather than seeking independence right away, Reverend Harold Kim, the senior pastor of CCSC, encouraged pastors to first seek a relationship with the senior pastors of their respective churches.

"I understand some KM pastors might come off as being unapproachable or unavailable," Kim said. "But for all of the complaints we've dished out about KM pastors, we have to own up to our own issues as well. What are the issues we're responsible for? Earnest initiative; heartfelt, sincere invitation; and relational building and friendship with KM pastors."

"As busy or as tired as the KM pastor might seem, give him your earnest

initiative," he continued. "Serve him in any way. You've gotta find a way to have some face to face meeting time with him. Express your gratitude and your humility to learn from his wisdom and experience. Ask questions, and put on a teachable posture."

Kim himself is no foreigner to the struggles of being an EM pastor in a Korean immigrant church. After being ordained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 Kim served at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 an immigrant church in Centreville, VA -- as the EM pastor. After serving there for five and a half years, Kim came to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CPC) as the EM pastor in 2007.

Kim is mostly known for leading CCSC's successful transition into independence, but while serving as an EM pastor, he shared that he faced his share of successes as well as failures and struggl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in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leadership, emotional and relational maturity, and financial accounting."

Through these experiences, Kim learned a number of lessons in terms of the KM-EM relationship, and becoming an independent church.

Kim found that earnest initiative from the EM went a long way, bo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ior pastor and the EM pastor,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inistries as a whole. When Kim was serving as the EM pastor of CPC, he shared that he usually took the initiative to seek out Rev. Bryan Kim, who was the senior pastor of CPC at the time.

"Most of the time, I was the one who knocked on his door first," Kim said. "And I was transparent and open about everything I was feeling or thinking, and about every major decision -- I ran every decision by him."

The EM as a whole also took initiative to serve the KM by hosting banquets and fellowship gatherings to serve the KM session and elders.

"We initiated, cleaned, prepped, financed, and served for every part of [each banquet or fellowship]," said Kim. "And it was a big deal to the KM. When we made that kind of gesture, they overflowed with praise and gratitude toward us. We heard them say, 'This is the first time we had an EM who did this for us.'" Even now, as an independent church that still shares the campus and facilities with CPC, CCSC tithes to CPC each year as a gesture of appreciation, Kim said.

Another responsibility of an EM pastor, Kim realized, is to show the KM that the EM is maturing and growing.

"The growth could be seen in numbers, or in finances, or in the faith of the leadership. When the senior pastor sees the EM, does he or she see that you and the leadership are passionate in fulfilling the mission of the church?" Kim said.

"No matter what culture or language, nothing communicates better than, 'I love you and appreciate you,' and showing growth, motivation, and passion in what we do," he added.

There are also several lessons Kim learned through his and CCSC's journey to becoming an independent church, one being that independence should not be the primary goal for any church or English ministry. Even for CCSC, independence did not become the goal until several years after

Kim came to CPC as the EM pastor.

"The primary goal is: Can we be a holistic, healthy church?" Kim said. "And [a pastor's] number one challenge in achieving that goal is going to be [himself]. A church will never outrun the leader too far."

Hence, ultimate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spects of the health of a church or ministry is the health of its leader, spiritually, mentally, physically, and emotionally, Kim said. Personal growth of the pastor is also important.

"No matter what culture or language, nothing communicates better than, 'I love you and appreciate you,' and showing growth, motivation, and passion in what we do."

"Am I growing? Am I repenting and growing in grace? Am I becoming more like Christ in my conflict resolution, my attitudes and thoughts? Am I becoming more holy, more godly, more winsome? Am I finding more joy, contentment, peace, and wisdom?" Kim said as examples. He added that a pastor's discovery of unique preaching and ministry qualities is also important in growth.

"Find your own preaching voice, have your own philosophy of ministry; don't try to be like anyone else," he said, encouraging fellow pastors. "People aren't needing anyone else but you, and God wouldn't have called you if it wasn't you that He wanted. Get to know more of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 are you a prophet, priest, or king? -- and find a team that complements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Kim also encouraged pastors to seek counsel from older and wiser, godly people from within or outside of the local church.

"If you're the smartest and wisest person in the room, then you are in for a world of trouble," Kim cautioned. "I

do not know where CCSC would be without the counsel of our session, professional counselors and lay counselors, accountability groups for pastors, and people who work with me and yet are also my friends within the church."

An attitude of arrogance should especially be left out of any conversation regarding independence, Kim added. In CCSC's journey to becoming independent, there were three things that he and the leadership absolutely prohibited anyone in CPC's EM from saying regarding the reason the EM wanted to become an independent church:

1) "It's because we don't like you [the KM]"; 2) "We just want to be autonomous, and we don't want any accountability. Just leave us alone"; and 3) "You [the KM] are limiting or preventing our growth."

"We corrected and persuaded anyone who had questions in any of these three categories," Kim said. "In the gospel, if we're not right with our home culture, what make us think we'll be effective in being missional with anyone else?"

Similarly, forcefully requesting independence out of a subversive or rebellious attitude is also not recommended, Kim said, and added that that is "essentially a church split."

The most compelling, biblical reason that CCSC found to become independent, Kim said, was that without independence, the EM of CPC couldn't fully mature by making its own mistakes and taking full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s of its leaders and members.

"And without biblical maturity, we found we won't be effective missionally -- to serve the older generation better, as well as to serve the multi-ethnic community around us."

"Be faithful where you are," Kim encouraged pastors. "God is sanctifying you and training you for something there, or somewhere els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2015 미주 목회자 및 평신도 장자권 세미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죽았더라!
2015년도는 주안에서 됩니다!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강사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담임 | 대전햇빛교회 회장
매주 대전햇빛교회에서 대전·충청권 600여명의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라는 행복목회철학을 가지고 부흥 성장시킨 교회

낮은 자존감 짙은 열등의식으로 시골 30명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목사의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의 원동력인 핵심 말씀을 정리한 평신도 말씀훈련 교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의 현장!! 이미 대전 햇빛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600여명의 목회자 부부와 14개월 만에 5,3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해외 24개국 선교사님들과 세미나에 참석하신 국내교수님들을 만족케한 검증된 세미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 지난 1년 동안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말씀훈련을 성원해 주신 동역자님들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말씀 훈련교재를 권유있는 신학교수님들의 지도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이란 제목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20과로 증보하여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말씀교재를 완성한 후 2015년 동역자님들의 행복목회를 돕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외 해외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목회자(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및 평신도들께서는 1차 남가주 성시교회와 2차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미주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바라오며, 주변에 알고계신 목회자님들 및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해야 할 대상자

- ① 제자훈련을 원하는데 맞는 교재가 없어서 고민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 ② 제자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어서 고민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 ③ 재산을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 ④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슬럼프에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 ⑤ 사탄,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 ⑥ 목회 및 신앙생활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지쳐서 너무 힘든 목회자 및 평신도
- ⑦ 학력이나 외모 등의 낮은 자존감과 강한 열등감으로 고민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 ⑧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 ⑨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장자인 정체성을 상실한 목회자 및 평신도
- ⑩ 삶의 변화와 치유와 간증을 원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의 특성

- ① 어린이, 중, 고, 청년부, 장년, 노년부와 대그룹, 중, 소그룹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세미나
- ② 개척, 미자립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모두 적용 가능한 세미나
- ③ 목회자에게 담대함을 드리고 설교를 기쁨지게 하고 모든 예배에 기쁨 부으심이 있는 세미나
- ④ 교회재정과 가정, 사업장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미나
- ⑤ 단 한번만 받고도 누구나(평신도 리더 포함) 말씀사역이 가능한 세미나
- ⑥ 단순히 성경공부가 아닌 영성훈련교재로 구성
- ⑦ 세미나 끝나고 곧바로 섬기는 교회에서 그대로 쉽게 제자 훈련 실행 99% 가능한 세미나
- ⑧ 현장에서 즐거워 지루하지 않은 참석자 99% 행복 만점 세미나
- ⑨ 영적 권능이 발동되면서 믿음으로 명령, 선포, 징복,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미나
- ⑩ 첫 열정이 회복되고 영육의 회복과 치유의 간증이 일어나는 세미나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목차

1. 장자의 신분을 확신하고 누리라 2. 장자권의 절대가치를 사모하라 3. 나의 아버지 하나님 4. 나의 주 예수님 5.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6. 성령의 권위에 무릎 꿇라 7. 성령속 큰 소리 기도들 8. 크고, 크고 큰 천국의 소리들 9. 천지창조로 본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10.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라 11.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를 누리라 12. 사탄과 마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세계를 바로 알라 13. 정복의 권세를 누리라 14.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라 15.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현장을 배우라 16.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앞세우라 17. 신약교회 성도들의 명령과 선포 현장을 재현하라 18. 보혈의 권세를 누리라 19. 저주의 정서를 정복하라 20. 하나님과 동역함의 특권을 누리라 ※모든 집회는 저자인 이영환목사가 직접 인도합니다.

목회자 소감 | 가나다순

- 금관교회 김홍도 목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선포기도로 이루어진 말씀훈련을 접하는 분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목회자 세미나이며, 가장 강력한 말씀 훈련교재입니다.
-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교재는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란 고강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입니다.
- 백석예술대학교 기획조정 부총장, 구약학 김진섭 교수**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엡 1:3)을 누리며 나눠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개척해서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말씀과 기도, 온유와 겸손으로 2만명의 성도를 목양하는 이영환 목사님이 체득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육부총장, 구약학 류호준 교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위축되어있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변방에서 방관자처럼 무력하게 서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희망과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접하는 모든 분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조직신학 박찬호 교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그 내용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그런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구촌교회 원로, 국제코스타 이사장 이영원 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는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을 통해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의 회복의 영광을 기도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빼앗기고 부도나고 무너졌던 장자권을 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장자권의 비밀과 축복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보급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수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을 확신합니다.
- 신길교회, 기성 총회장 이신웅 목사** 이영환목사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의식을 갖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을 강하고도 명확하게 일깨우는 귀한 책입니다. 장자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록되기에 모든 독자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심령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여 강력한 군사로 무장될 것입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을 접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반드시 많은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영환목사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길을 자세히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책을 읽는 모든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영적 장자의 축복을 현실로 소유할 것이며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말씀훈련과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시 부흥하고 성령님의 역사의 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 영혼 구원과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실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영환 목사의 목회 현장에서 나타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교재이기에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성훈련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영육간에 큰 새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예강백석 총회장,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 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 목회자중심으로 쓰여진 신앙교육서와 같은 책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현장 목회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 때에 이영환목사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나눔운동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백석신학대학교 학장 정인환 교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영적 능력을 잃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유업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하여 잃어 버리고 살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되찾아 누리게 하는 도전이 되어, 교회들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레슨이 될 것이라 믿어 적극 추천합니다.
- 수영로교회 원로 정필도 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은 마지막 시대 이영환 목사를 통하여 한국 및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장자권의 회복과 누리」, 이 목회현장에서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2015 미주 목회자 및 평신도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1차 서부

일 시 | 2015.6.3(수)-6(토) 오후 7:00

장 소 | 이영환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 대전햇빛교회 회장) 목회자 및 평신도

장 소 | 남가주성시교회(730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등록 | UBM교회 홈페이지(ubmchurch.com)

전화등록 | (714) 634-8360

문의 | 남가주성시교회 안병준 목사 (714) 469-1200
UBM교회 앤드류김 목사 (714) 634-8360

2차 동부

일 시 | 2015.6.12(금), 13(토) 오후 8:00, 14(주일) 오후 4:00

장 소 | 이영환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 대전햇빛교회 회장) 목회자 및 평신도

장 소 | 뉴저지사랑과진리교회(169 N. Washington Ave. Bergenfield, NJ 07621)

등록 | 사랑과진리교회 홈페이지(itchurch.com)

UBM교회 홈페이지(ubmchurch.com)

전화등록 | (201) 406-6784 / (714) 634-8360

문의 | 사랑과진리교회 벤자민오 목사 (201) 406-6784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사전등록을 권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 교재 및 교안은 별도구입, 교재는 세미나 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 및 리더십 멘토링 미팅 *장자권 세미나 참석 목회자분들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일 시 | 2015. 6. 8(월)-9(화)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장 소 | 이영환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 대전햇빛교회 회장)

장 소 | UBM교회(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주 최 | 미주 장자권세미나 본부

협 찬 | 기독교일보